

ISSUE BRIEFING

강후진의 「유금마성기」 복원을 통한 마한·백제 역사 재조명

이슈브리핑
2021. 03. 12 vol.243

연구진
박정민 전북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권이선 전북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참조하여 작성. <https://www.law.go.kr>. 2020년 12월 31일 검색.

2)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잠들었던 고대해상왕국 마한 깨우다」, 2020년 11월 13일 ; 「전남도,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추진」, 2020년 12월 11일.

3) 구미시 보도자료, 「낙동강 중류 고대문화의 중심지 "구미"」, 2020년 9월 9일.

1. 추진 배경

■ 2020년 6월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¹⁾

○ 20대 국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하며 관련 법안 제정

-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연구·조사·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 2020년 6월 9일에 공포하여 2021년 6월 10일에 시행
- 전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문화권 등 6개 문화권으로 구분
- 특별법을 통해 각 문화권의 실제적 연구와 조사, 정비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해당 문화권을 보유한 지역은 개발과 보존을 토대로 문화·관광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 특별법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은 특별법에 대응하여 마한역사문화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박물관의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을 선정함. 도내 11개 시군 및 8개 유관기관과 마한문화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중. 아울러 영암 내 동리 쌍무덤 등 3년간 10개소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킬 계획²⁾
- 구미시는 선제적으로 고대사(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고대소국의 형성과 발전, 지명사 연구, 고대역사 중심 박물관 건립 등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과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신청 등을 위한 사업 추진³⁾
- 전북은 7월부터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하였고, 제외된 마한 문화권을 포함하기 위하여 민·관·학이 협업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함. 이러한 기반으로 2020년 11월 2일 개정법률안 제시
- 문진석 의원은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개정 법률안 발의(2020년 12월 16일)

■ 마한 역사문화권의 정비와 계획 마련 필요

- 2021년 특별법은 전북과 충청의 마한 등을 포함하여 권역 확장 가능성
 - 2021년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전북의 마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이며, 후기 마한의 거점이었던 전북은 완주 상운리, 고창 봉덕리 등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유
 - 이처럼 전북은 마한의 꽃을 피운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발전 계획 수립 및 콘텐츠 확장 필요
 - 고고학과 일부 문헌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는 전북 마한 콘텐츠를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 있음

- 정형화된 마한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콘텐츠 필요
 - 고창(당시 무장현) 출신 조선 후기 실학자인 강후진(姜侯晉)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영록』, 『송사지』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전북의 실학자
 - 강후진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고조선-마한-삼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마한의 중심지가 현재의 익산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직접 답사하여 기록을 남긴 것이 「유금마성기」임
 - 「유금마성기」가 포함된 책 제목은 『와유록』으로, 말 그대로 누워서 역사적 현장을 유람한 기록. 코로나 19로 비대면 시절에 누워서 집에서도 체험하고 대리만족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소재
 - 조선 후기 실학자의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고고학과 고대사에 집중되었던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존의 자료와 연계하여 사적 지정, 국책사업 발굴 등의 기반 구축

2.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실감형 기술로 구현되는 전북 마한

■ 최근 한국판 뉴딜 속 문화재 데이터 관련 정책동향

- 지난해 7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 10대 대표과제 중 데이터 댐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문화재 데이터 집적 및 융합을 통해 살아 있는 콘텐츠로 확산과 활용이 가능
 - 단순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넘어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색, 공유, 표현하며 디지털 집현전이 가속화 될 전망
-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미래 전략”수립을 통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⁴⁾
 - 문화유산의 모든 정보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리,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지원 등 7개 추진과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 여기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 실감형 콘텐츠 활용분야로 관광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 지역축제 및 대표관광지 등에 지원 가능
 - 신규사업으로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이 21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7,875백만원)되고,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비대면 디지털 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강화

4) 문화재청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유산 미래 전략 발표」, 2020년 12월 9일 ; 문화재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0

<그림 1> 황룡사 증강현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0-7-22

■ 디지털로 복원하는 18세기 익산

○ 미륵사지 석탑의 실감콘텐츠 제작

<사례 1> 미륵사지 석탑 관련 사료 이용

- 발두렁 사이의 7층 석탑은 매우 높고 크다. 모든 석재들은 둘러 막아 첩첩이 쌓아 올렸고, 돌기둥은 별도로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다. 세상에서 동방석탑의 으뜸이라 함은 헛말이 아닌 것 같다. 백 년 전에 벼락으로 그 절반이 무너졌고, 아래 석문이 있어 출입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가 놀 수 있을 정도이다. 서쪽 벽을 밟고 탑 위에 올라가니 농부 세 사람이 농기구를 옆에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 田畦中有七層石塔 極其高大。皆用屏累疊粧成 別以石柱支其四隅。世所謂東方石塔之取者 非虛語也。百年前因霹靂毀其一半 而下有石門能通出入 遂與三人同入遊玩。緣西壁陟塔上 有數三農人挾田器臥於其。(『유금마성기』 중)

-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6층까지 남아 있지만 유금마성기에 의하면 당시는 7층까지 있었다고 함. 또한, 복원된 동탑에서도 알 수 있듯 그 내부는 성인 3명이 놀아도 충분할 정도의 크기였음. 여기에 서쪽 벽을 밟고 탑 위에 올라가면 농부 3명이 농기구를 옆에 두고 누워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
- 이를 근거로 1738년 당시의 석탑을 AR 혹은 홀로그램으로 복원하여 미륵사지 석탑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할 필요 있음. 아울러 당시에는 석탑 위에서 놀았다는 장면에서 차용하여 석탑의 3~4층 높이를 재현한 VR을 설치하고, 100년 전의 미륵사지 일대 사진을 배경으로 넣어 현대인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아울러 현재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동탑 입구에 유금마성기의 성인 3명이 놀아도 충분한 크기였다는 안내판을 명기하고, 우리나라 탑 가운데 내부를 체험할 수 있는 희소한 곳이라는 사실을 안내
- 사례 : 일본 나고야성 증강현실,⁵⁾ 황룡사 디지털 증강현실

○ 준왕의 남천과 관련 홀로그램 영상 제작

- 2020년 2월부터 익산에 홀로그램서비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관

5) 일본 사가현(佐賀県) 가라쓰시(唐津市)에 있는 유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직전에 축성한 성이다.(국가 지정 특별 사적). 현재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관리하며 상설 전시 해설을 위한 태블릿 단말기로 다이어그램 접이식 화면, AR(실제 풍경속에서 CG 이미지 표시)을 통해 나고야성을 재현한다.(縣立名護屋城博物館 참고, <https://saga-museum.jp/nagoya/information/guide-tablet.html>) 2021년 1월 29일 검색.

련 인프라 구축

- 준왕의 남천, 삼한 정통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구성하여 홀로그램 영상 혹은 미디어파사드로 제작
- 미륵산성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유금마성기에 서 현재와 부합되는 내용(예 : 동문은 대문이고, 수구가 있다. 안에 계곡이 흐른다 등)을 안내판 등에 기재하여 관심을 끌 필요 있음. 특히, 동문지 등에 키오스크(Kiosk) 혹은 조형물이나 상징물 등을 설치
- 익산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한의 시작지가 익산이었다는 사실을 디지털콘텐츠에 접목하여 알릴 필요 있음. 관련 내용은 쌍릉에 설립할 공원의 자료관 혹은 마한관 등에 구현
- 사례 : 문화재 홀로그램, 전라감영 미디어파사드 공연



〈그림 2〉 제59회 탐라문화제 개막식-만파식적 "홀로그램 퍼포먼스&대금연주"

※ 출처 : 퓨전국악그룹 쿤, 2020-10-7

〈그림 3〉 전라감영의 디지털병풍(키오스크)와 상징물

3. 새로운 마한 콘텐츠, 마한 유적지를 답사한 전북의 실학자 강후진

■ 강후진의 생애

- 강후진(1685 ~ 1756)은 신천 강씨로 전라도 무장현 일대에서 생애를 보냈고, 그 일가가 여전히 세거하고 있음⁶⁾
 - 강후진의 증조부인 강귀생이 1600년대 초반에 현재의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일대에 자리 잡았고 세거
 - 조부 강지수는 문장과 덕망이 높았다고 하고, 후일 그를 기리기 위해 '신산사(新山祠)' 설립
 - 『감영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제자를 두고 친지가 곳곳에 있었음. 이 원고가 발견된 것은 1978년에 황윤석 생가로, 이를 통해 강후진의 집안과 황윤석의 집안이 교유했을 가능성도 높음
 - 묘소는 현재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산 10-1에 있음
- 한국 상고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에 자신만의 사관을 가졌음⁷⁾

6) 김승대, 「太平散人 康侯諱의 「遊金馬城記」 研究」, 『한국실학연구』 38, 2019, 289~293쪽.

7) 허흥식, 「康侯諱의 생애와 저술」, 『서지학보』 24, 2000, 73~74쪽.

8) 『화이잡록』은 우주와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중국과 전세계에 대한 내용이 저술된 책

9) 김경태, 「이익과 안정복의 東國正統論 재검토」, 『한국사학보』 70, 2018

- 강후진은 과거 등을 통해 입사한 인물은 아니나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상고사부터 지역사까지 아울러 연구하였음
- 그가 남긴 저술은 『감영록(鑑影錄)』, 『역대회령(歷代會靈)』, 『화이잡록(華夷雜錄)』, 『송사지(松沙誌)』 등으로 역사지리 같은 실학 관련 자료
- 『감영록』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간관과 공간관 반영. 즉, 역사 체계를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기자조선-마한-삼국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확립함. 실제 그의 저서는 신라보다 고구려나 백제에 많은 분량 할애
- 『화이잡록』⁸⁾은 중국과 전세계로 시각을 확대하고 우주와 공간에 대한 관심을 넓혔음. 이는 당대 학자들이 집중한 명분론적 화이론에서 관념을 확장하였다는 의미 있음
- 『송사지(松沙誌)』는 무장의 옛 이름인 무송(武松)과 장사(長沙)의 이름을 따서 만든 책으로 당대 무장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임. 넓은 시각으로 국가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로, ‘글로벌(Glocal) 인재’라고 할 수 있음

■ 마한을 우리 역사의 정통으로

○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과 안정복 등은 마한 정통론 주장⁹⁾

- 실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으로 계승된다고 인식
- 위만은 찬탈자이므로 성리학적 정통론으로 보았을 때 적통이 아니고, 적통인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가 마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계승되었다는 논리
- 조선 후기 홍여하(1620 ~ 1674)가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에서 제기한 후 이익(1681 ~ 1764)과 안정복(1712 ~ 1791) 등이 체계화

○ 눈과 발로 삼국정통론의 실체를 파악한 강후진

- 이익과 동시대인물인 강후진은 삼국정통론이 체계화되는 시기에 해당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관련 내용 기재
- 마한의 수도라 여기고 답사한 「유금마성기」가 실린 『와유록』에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라 인식한 서경(평양), 평안도 성천의 고구려 답사기, 고려 도읍 개경의 답사기 등이 실려 있음. 즉, 고조선(단군, 기자)-마한-고구려-고려 등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보유한 곳의 수도를 직접 답사하여 기록으로 남김
-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지닌 곳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기고 자신의 역사관을 피력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음. 아울러 보통의 실학자와 달리 책을 읽는데 머무르지 않고, 직접 유적을 답사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초중반의 역사인식 등을 알 수 있음
- 특히, 1738년에 익산 금마 지역을 답사한 「유금마성기」는 준왕이 수도로 삼았던 마한의 옛 땅으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보유한 곳으로 인식함. 직접

강후진의 「유금마성기」 복원을 통한 마한·백제 역사 재조명

관련 유적을 답사하여 당대 주요 유적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교통로 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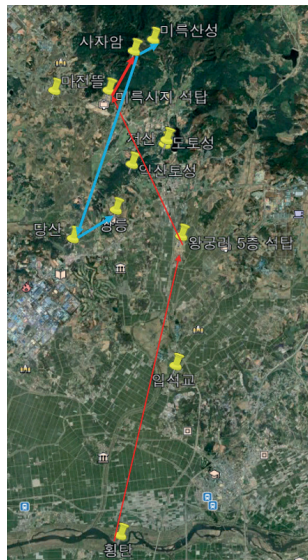
○ 마한과 관련된 콘텐츠 확보의 토대 마련

- 마한의 준왕과 백제 무왕을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백제의 유적을 마한으로 인식한 오류는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구전(口傳)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전기의 자료들에도 나타나는 현상
- 따라서 역사적 실체를 넘어 왜 이러한 인식이 나오고 당시에 유적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파악해 어떻게 하면 현대에 이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음
- 유금마성기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마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음. 예를 들어, 마한의 이름 유래, 정봉과 황봉과 같은 지명 유래 등임. 이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 강화 및 새로운 시각 발표, 스토리텔링,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음
- 기존의 사료들과 유금마성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마한의 시작점이 전북 익산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음

4. 누워서 유람하는 마한 여행기 복원 및 추진과제

▣ 「유금마성기」 속 마한 유적지 답사 코스

- 강후진이 1738년(영조 14)에 기존의 자료와 자신이 직접 답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내용으로 왕궁리, 미륵사지, 미륵산성(기운성), 쌍릉 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남
 - 유금마성기의 내용은 『와유록』에 포함되었고, 11장으로 구성
 - 내용은 ①금마 지역과 마한에 대한 소개 ②왕궁리(왕검성) ③미륵사지 ④미륵산성 ⑤쌍릉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지역은 현재의 춘포, 왕궁면, 금마면, 팔봉동 일대로 조선시대의 익산군에 해당
 - 강후진이 익산 지역에서 1박 2일로 답사. 주된 내용은 준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미륵산성
- 강후진은 익산 금마 지역이 고조선의 준왕이 남하한 곳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그림 4〉 강후진의 답사 루트

※ 구글 지도 편집

마한의 관련성을 제기

- 유금마성기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의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금마지』 같은 지방지, 각종 고지도 등에서도 금마 일대를 마한의 발상지로 인식하고,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쌍릉 등을 마한의 유적으로 인식
- 당대 익산 지역은 마한의 계승지라는 인식이 팽배

○ 도입 부분부터 마한과 익산의 관련성 강조

- ‘호남의 금마군은 옛날의 마한국이다.(湖南之金馬郡古馬韓國也)’로 시작, 마한의 시조 무강왕 기준이 위만에게 핍박 받은 이후 미륵산에 도읍을 삼고 마한 54개국을 지배하였다는 내용으로 금마군(익산군)의 간략한 연혁 표기
-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금마지』 등의 건치연혁에서도 모두 ‘본래 마한국이다(本馬韓國)’라며 관련성 강조
- 강후진은 ‘고을에는 늘 마한의 옛 성이 있고, 항상 기준이라는 이름이 따라 다닌다. 비록 성벽이 무너지고 궁궐은 폐허가 되었지만 유적은 여전하다’고 기록.¹⁰⁾ 그는 관련 유적지를 무강왕 기준이 쌓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증명하기 위한 답사기 작성

■ 강후진이 인식한 마한 유적

○ 왕검성(王儉城)

- 무강왕이 성을 쌓고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을 추모하는 뜻을 붙여서 ‘왕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과 국왕이 궁궐을 지었기에 왕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으나 강후진은 마한왕이 정사를 듣는 곳이라고 기재
- 5층석탑, 사방에 무너진 기왓장과 깨진 그릇 등이 산재해 있음. 농민들이 남긴 이야기 등 유적과 관련된 현황과 구전 등을 기재
- 이곳에서 보이는 두 개의 토성(익산토성, 도토성)을 마한의 군대가 주둔한 곳이라 인식

○ 미륵사지와 미륵산성

- 무강왕과 선화공주가 사자사로 가는 길에 건립했다고 인식
- 미륵산성을 무강왕 기준이 쌓은 기준성으로 보고 답사
- 둘째날 오전 내내 미륵산성을 둘러보며 준왕과 관련성 고찰
- 사자암에서 동쪽 길을 따라 명적암, 기준성 남쪽으로 올라 한 나절 동안 기준성 답사
- 성의 구조를 보면서 현재와 같이 남쪽에 소문, 동쪽에 대문과 수구가 있음을 기재하였고, 북쪽에 성이 없는 사실을 산세가 높고 험준하기 때문이며 흡사 백악산과 같다고 인식함.¹¹⁾ 백악산아사달(白岳山阿斯達)은 단군조선의 수도로 전해지는 지명으로 고조선과 연관성을 높이는 사례

10) 州常有馬韓之舊城 常帶箕準之名 雖雉堞傾頽 宮闕丘墟而遺跡 完然. (『와유록』 「유금마성기」)

11) 백악산은 지금의 구월산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은 처음에 평양을 도읍으로 정한 뒤 백악산으로 옮겨 1500여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강후진의 「유금마성기」 복원을 통한 마한·백제 역사 재조명

- 미륵산을 “기준이 처음 와서 거주한 지역”이라고 인식

- 기존의 사서는 준왕이 남천할 때 무리 수천의 무리,¹²⁾ 혹은 좌우 궁인(宮人)¹³⁾ 등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재함. 즉, 한·마·황·정

씨 성을 가진 네 장수를 거느리고 왔다고 함. 아울러 한씨와 마씨는 건국할 때 얻어 나라이름을 마한으로 했고, 황씨와 정씨 양 장수는 국본(준왕)을 굳게 지켜 컸기 때문에 황봉과 정봉이라는 봉우리 이름을 붙였다는 더 구체적인 기록을 함

- 미륵산 상봉에서 바라본 전주 일대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이를 마치 평양의 강 밖을 방불한다고 표현함. 이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과 익산의 모습을 등치시켜, 계승성을 구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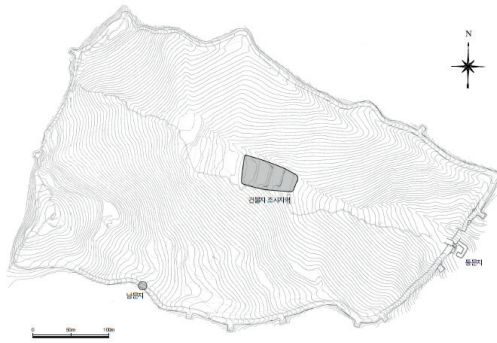
○ 쌍릉

- 왕묘리(王墓里)에 있는 무강왕과 왕비의 능으로 표현
- 여기에서도 마한은 한(漢) 혜제(惠帝) 2년 정미(기원전 194)에 일어났다며 준왕이 남천한 시기를 마한의 시작으로 인식

■ 실학자의 길 구축과 미륵산성의 사적 지정

○ 강후진이 답사한 길을 복원하여 관광 루트 제작 가능

- 강후진이 기재한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답사 루트 제작 가능.(<그림 1> 참고) 이를 토대로 ‘실학자와 함께하는 마한의 유적 찾기’ 혹은 완주 상운리와 연계한 ‘만경강 유역의 마한 유적 탐방길’ 등을 제작
- 유금마성기를 통한 지명 고증 가능
- 강후진의 이동 경로 : 전주시 도도동 → 익산천변(순례길) → 왕궁리 → 미륵사지 → 사자암 → 미륵산성 → 사자암 → 당산 → 왕묘리(쌍릉)



〈그림 5〉 미륵산성 위치도
※ 원광대 박물관, 『미륵산성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2008

12) 『후한서』 권 35, 「위지」 동이열전 75

13)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환 선비동이전 30 ; 『삼국유사』 권 1, 「기이」 1, 마한.



〈그림 6〉 강후진의 미륵산 등산로(추정)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편집

14) 緣西崖向彌勒山 山路崎嶇傾
側 依杖散行纒 至峯上 則日將
暮矣 …(중략)… 遂控入留獅子
庵, 『와유록』 「유금마성기」

15) 미륵산성 발굴 보고서에 의하
면 2008년의 발굴에서 동모 1
점과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고 한다. 이를 근거로 준왕의
남분과 축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원광대학교
박물관, 『미륵산성-건물지 및
남분지 발굴조사보고서』, 익산
시, 2008, 131쪽) 이러한 점 역
시 미륵산성과 마한의 관계를
나타낼 때 소개할 수 있을 것이
다.

- 현재 미륵사에서 사자암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방향으로 있음.
“처음서쪽 기슭을 경유하여 미륵산으로 향하였다. 산로는 경사지고 험해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올라가 겨우 봉의 정상에 오르자 해가 장차 저물었다.
…(중략)… 마침내 사자암으로 들어가 머물렀다.”¹⁴⁾라는 기록을 통해 경로
유추 가능. 따라서 여기에 관련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혀
등산객에게 친숙성을 높일 필요 있음
- 둘레길을 활용하여 익산시 및 전북의 초·중·고생이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
발, 문화유산 탐방수업 등에 이용

○ 미륵산성의 사적 지정

- 2020년 12월 3일에 백제왕도의 핵심유적인 미륵산성과 금마도토성의 사적
지정 방안 학술대회 개최. 여기에서 백제에 방점을 두어 사적 지정 방안 논의
- 관련 유물과 역사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사적 지정의 가능성은 충분
- 유금마성기에 나오는 정봉과 황봉 등 지명을 고증하여 위치 비정 필요
- 역사문화특별법이 시행될 때, 마한의 정통성을 보유한 곳이라고 강조. 기준
과 관련된 마한의 건국지, 혹은 고조선의 계승지라는 점을 유금마성기, 금마
지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연계할 필요 있음¹⁵⁾

■ 강후진의 조명과 실학자로서 위상 정립

○ 새로운 전북의 인물 발굴과 조명을 통한 전북만의 콘텐츠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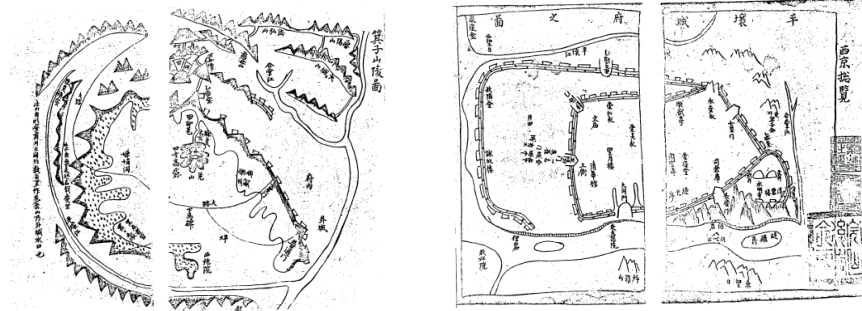
- 전북의 인물 강후진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독특한 사관을 가지고 많은
저술을 남겼음. 그는 실학의 형성기의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는 성호 이익
과 동시대에 활약하였고, 역사·지리에서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그는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사관을 가지고 마한이 고
조선을 계승한 지역이었음을 강조. 이는 익산을 넘어 전북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주요 근거
- 강후진을 전북의 인물로 재조명하고, 더 나아가 한국역사에서 조선 후기 실
학자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함
- 『와유록』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아울러 번역과 면밀한 검토
를 통해 보물까지 격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라유학진흥원의 1호 과제로 “강후진 저서 번역” 추진

- 현재 전북은 도민의 자긍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
흥원과 차별되는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려고 함
- 조만간 설립될 전라유학진흥원에서 강후진과 관련된 자료를 번역하고 재
조명한다면 전북 지역의 실학자인 강후진의 실체를 알리고 그 위상을 새롭
게 조명할 수 있고, 국학 분야 ‘전북뭇 찾기’의 토대로 작용

강후진의 「유금마성기」 복원을 통한 마한·백제 역사 재조명

- 아울러 강후진이 삼한정통론에 입각하여 저술한 『와유록』은 이러한 사관(史觀)을 체계화하여 직접 답사한 자료. 이를 통해 전복이 고조선을 계승한, 우리 역사의 중심지였다는 인식을 강조할 수 있음
- 이외 그가 남긴 저서들을 여러 판본으로 수집하여 기본 토대 구축. 예를 들어, 유금마성기에 미륵산을 답사를 마친 후 “마침내 봉우리를 빙 돌아 본 후에 산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렸다.”¹⁶⁾라는 구절이 있음. 즉, 정상에서 지형을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는 그림이 없음. 같은 책에서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서경을 답사한 내용(서경총람)에 직접 그린 그림이 남아 있음. 따라서 다른 판본을 찾아 금마를 그린 내용 등을 밝힐 필요 있음



16) 遂泛峯後圖寫山形. (『와유록』 「유금마성기」)

<그림 7> 서경총람의 기자 산릉도

<그림 8> 서경총람의 평양 성부지도

- 강후진의 저서를 번역하여 그의 학문을 널리 알리고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함. 그렇다면 유형원-강후진-신경준-황윤석-전우 등으로 이어지는 전라유학의 맥을 구축할 수 있음

<참고문헌>

『후한서』, 『삼국지』, 『삼국유사』, 『와유록』
 구미시 보도자료, 「낙동강 중류 고대문화의 중심지 “구미”」, 2020년 9월 9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잠들었던 고대해상왕국 마한 깨우다」, 2020년 11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추진」, 2020년 12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유산 미래 전략 발표」, 2020년 12월 9일
 문화재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0
 허흥식, 「康侯晉의 생애와 저술」, 『서지학보』 24, 2000
 김경태, 「이익과 안정복의 東國正統論 재검토」, 『한국사학보』 70, 2018
 김승대, 「太平散人 康侯晉의 『遊金馬城記』 研究」, 『한국실학연구』 38, 2019
 원광대학교 박물관, 『미륵산성-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익산시, 200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의 성곽』, 2016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2017
 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미륵산성』, 2017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03. 12. vol.243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